

2022.12.5 ~ 12.11
미국 뉴욕/뉴저지

국외출장결과보고서

2022. 12. 1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외출장결과보고서

1. 출장목적

- (뉴욕) 뉴욕 HMM지사 방문
 - (뉴저지) 뉴저지시티대학 LOA 체결식 참가, 뉴저지 하원의원실 방문, 센터설립 사전회의 참가
- * 현지사정으로 뉴저지 하원의원실 방문이 취소될 경우 관련 항만당국 관계자 미팅으로 대체 예정

2. 출장자

- KMI 물류·해사연구본부 이성우 선임연구위원
- * 원장님 12월 8일부터 11일 일정 동향원장님 보스턴 행사 이후 합류 예정

3. 출장일정 및 출장지

- 출장일정: 2022. 12. 5(월) ~ 12. 11.(일), 5박 7일

일자	방문일정	내 용	비고
12.5(월)	- 부산-서울(KTX) - 인천-뉴욕(20:20-20:20)	출국	KE085
12.6(화)	뉴저지시티대 방문	- LOA문건 검토 및 확정 - 센터 설립 사전회의	
12.7(수)	뉴저지시티대 방문	- 센터 개소관련 현장 및 연구실 답사 - 한국계 교수진들과 협력회의 개최	
12.8(목)	뉴욕 현지 주재기업 방문	포스코, 판토스 홀딩스, 오션블루 등 현지 국내 기업 협력 회의 개최	
12.9(금)	뉴저지시티대 방문	- LOA 체결오전 - Hellen Park 뉴저지 하원의원실 방문 - HMM 등 현지주출 물류기업 간담회 개최	
12.10(토)~11(일)	- 뉴욕-인천 (00:50-06:45(+1)) - 인천-부산	11일일 인천 귀국 후 부산 이동	KE086

※ 현지시간 기준이며 상기 일정은 현지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코로나 상황으로 항공편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입출국 시간 및 항공편 변동 가능

출장 주요 내용

I LOA 사전검토 회의 및 센터 설립 사전회의

- ☐ 일 시 : 2022.12.6.(화)
- ☐ 장 소 : 미국 뉴저지 NJCU school of business, 회의실
- ☐ 참석자 : 이성우 선임연구위원, 김은수 박사, NJCU측 vice dean Huijian Dong, Mr. Crig Katz, 4명
- ☐ 주요 내용
 - NJCU-KMI LOA 최종문건 관련 상호 합의
 - 기존 LOI 문건에 근거하여 LOA 문건 내용을 확인하고 향후 개소식에서 MOA 혹은 MOU 체결까지 일정 논의
 - LOA 체결식 형식에 대해 오전 9시 30분부터 조식과 함께 환담회를 가지고 학교 소개, 센터 설립 위치, 학교 주소 시설 소개 등 방법에 대해 논의
 - NJCU측 총장이 11월 15일자 사전 서명을 하여 소급하는 형태로 12월 9일 서명을 하지만 효력은 11월 15일자로 발효되는 것으로 정리
 - NJCU-KMI 공동연구센터 설립 일정 논의
 - 공동연구센터 설립 일정관련 KMI 공동센터장 우선 파견('23.1말)
 - 공동연구센터 설립과 운영을 위한 상호 의견 letter 송부(KMI→

NJCU, '23.1월 중)

- KMI 공동센터장 비자 서류 송부('22'12월 중) 후 '23년 1월 중순 까지 J-1비자 발급 완료 지원
- 관련 비자발급을 위한 서류 설명
 - DS 2019
 - Invitation letter
 - Original financial documents
 - SEVIS fee receipt in addition to the visa application fee. Information on the fee and the payment procedure can be found at: <https://www.fmjfee.com/i901fee/index.html#>
- Guest house, ID카드 등 KMI 공동센터장 근무시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NJCU 협력 요청

II

센터 현장 답사/한국계 교수진 협력회의

- ☐ 일 시 : 2022.12.7.(수)
- ☐ 장 소 : 미국 뉴저지 NJCU school of business, 회의실
- ☐ 참석자 : 이성우 선임연구위원, 김은수 박사, NJCU측 정현복 해양과학과 교수, Carol Powell manager, 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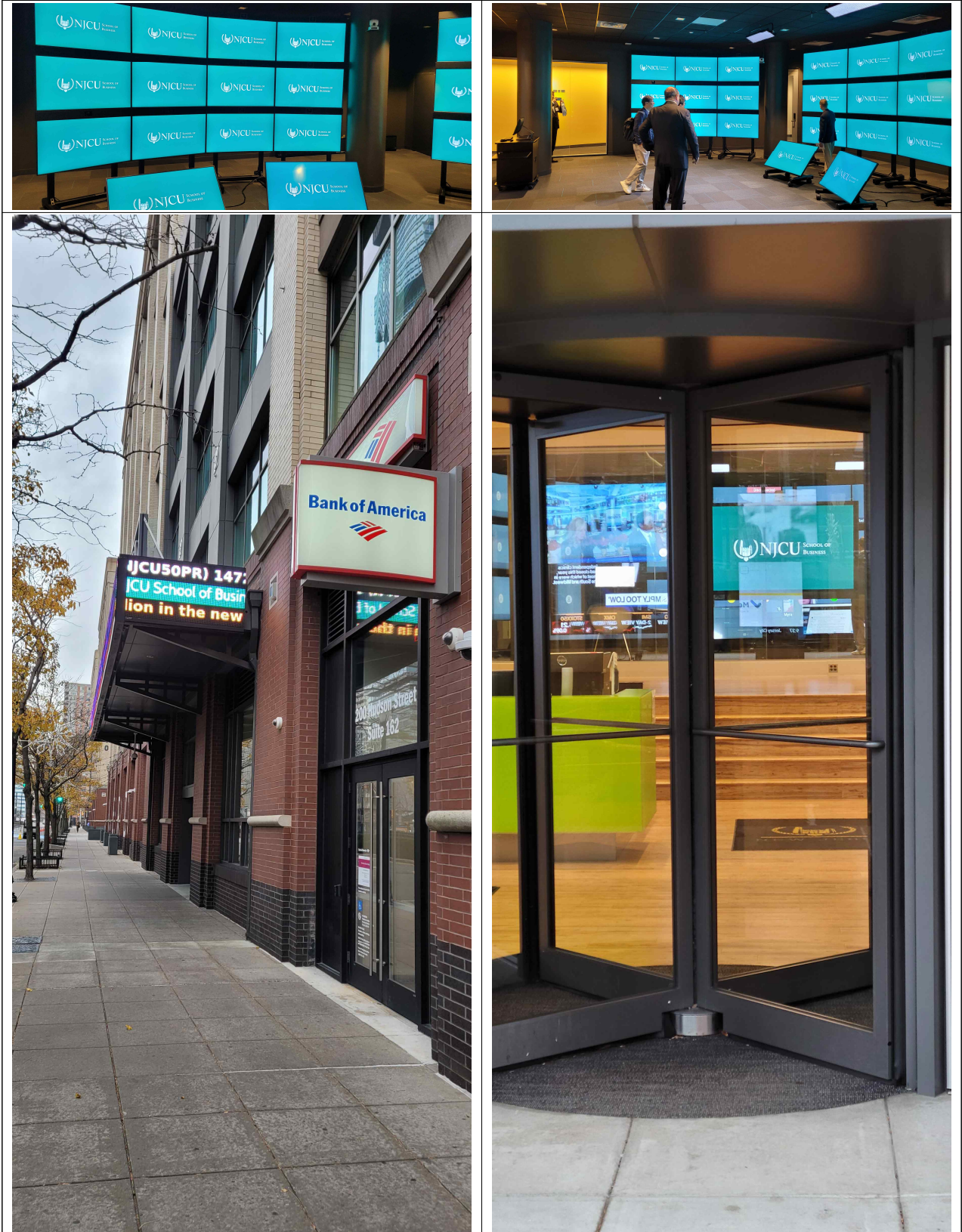
☐ 주요 내용

○ 센터 현장 답사

- 위치: New Jersey City University, Harborside 2, 200 Hundon

Suite 234F, Jersey City, NJ, USA

○ 공동연구센터 현장 사진



- 현재 해당 건물 2층 전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최소 3인 이상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 배정을 요청함
- 회의실, 글로벌 영상회의실, 도서관 등은 해당 캠퍼스에 있는 모든 시설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이외 본교에 있는 모든 시설 이용을 위해 학교 ID카드 발급 지원

○ NJCU 한국계 교수 면담

- 해양환경공학과 정훈복 교수와 미팅을 통해 북극해 생태보호 관련 프로젝트 이야기를 청취함
- 해당 프로젝트 관련하여 우리원, 극지연구원, KIOST 등과의 협력 방안을 추후 논의하기로 함

III

KMI-NJCU LOA체결식

□ 일 시 : 2022.12.9.(금), 9:30~11:00

□ 장 소 : NJCU School of Business

□ 참석자 : NJCU Bernard McSherry 학장 등, KMI 김종덕 원장 등
총 10여명

□ 주요 내용

○ 환영사

- Bernard McSherry NJCU Founding Dean & 김종덕 KMI 원장

2022년 최대 경제 리스크는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이를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라고 많은 글로벌 경제전문가들이 언급했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 이후도 이러한 기조가 지속될 것입니다. 한국은 가공 무역을 통해 국부를 창출하는 국가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과 관리는 국가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숙제입니다. 세계 1위 소비국인 미국 역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이 국가 경제 유지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 예로 미국 뉴욕연준이 글로벌 공급망 압력지수(Global Supply Chain Press Index)를 발표하고 관리할 만큼 금융기관에서조차 글로벌 공급망 관리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글로벌 최대 생산지인 아시아와 최대 소비지인 미국을 연결하는 해상 물류관점에서의 공급망 관리는 한국과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지켜나갈 수 있는 중요한 분야일 수 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교역의 90%가 해상을 통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교역은 글로벌 공급망의 큰 열개이며 이를 작동하게 하는 것이 글로벌 물류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해상물류는 글로벌 공급망 관리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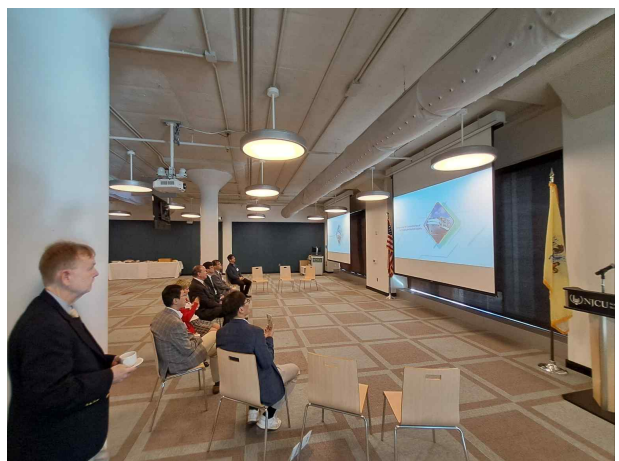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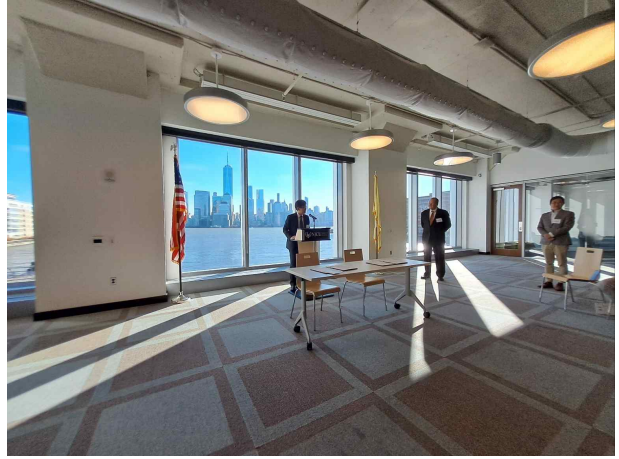
오늘 한국의 해상물류 Think-Tank인 Korea Maritime Institute가 미국 경제 심장부이자 글로벌 교역의 중심인 뉴저지에 있는 New Jersey City Univ. 와 공동협력을 위한 LOA 체결이 이 분야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첫 걸음일 것입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위해 선진국들은 Just-In-Time에서 Just-In-Case로 국가 물류관리체계를 재편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는 단일 국가 내에서만 관리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결국 국가와 국가, 대륙과 대륙, 시장과 시장 간 전체를 묶어서 JIC 관점에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 역시 KMI와 NJCU가 아시아 시장과 북미 시장을 연결해서 공동의 글로벌 공급망 관련 연구기반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미국 물류의 핵심 거점인 뉴욕/뉴저지와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의 북미로 연결하는 해상물류 거점인 한국의 부산은 상호 협력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의 물류중심간의 총괄적 협력 이전에 학술분야에서 상호 협력 기반을 우선 만들고 이를 업계, 정부로 확대해 나가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의 상호 LOA 체결은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큰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KMI-NJCU의 첫 발걸음이 양국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생산거점인 아시아와 세계 최대 소비지역인 북미의 글로벌 공급망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들을 만들어 낼거라 믿습니다.

○ 행사 사진



○ 행사 이후 주요 논의 내용

- 비자 문제 : 비자와 NJCU ID 및 이메일은 Craig가 거의 다 해결됨.
Craig나 국제부 직원이 참석하지 않아 이 문제를 논의할 대상은 없을 것
같음. 정헌복 교수님이 DS2019 서류 전달함
- 송금계좌 문제 : Kwi Brennan(NJCU Foundation 디렉터)를 통해 NJCU
Foundation이 KMI로부터 송금을 받고, 별도의 Research Project Account
를 만들어 이체하기로 하였음
- 주거 문제 : Tamara가 학교 Guest House를 알아봐 준다고 했었는데 학
교를 떠나서 지금은 follow-up이 안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확
인 부탁드림
- NJCU측 공동센터장 문제 : 연구소 세팅과 NJCU 교수, 교직원 및 학
생들과 소통해야 하는데 이은수 교수가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공동디렉
터로 지정해주셨으면 함

IV 뉴저지 엘렌 박 의원실 미팅

☐ 일 시 : 2022.12.9.(금), 11:30~12:00

☐ 장 소 : NJ, Teaneck, Ellen Park 사무실

☐ 참석자 : 엘렌박 의원, 장선직 보좌관, KMI 김종덕 원장, 한기원
실장, 이성우 박사, 김은수 박사 등, 총 7명

☐ 주요 내용

- 미국 뉴저지 최초 여성 주의원으로 한국에서 태어나 이민간 1.5세대 교포
정치인으로 뉴욕 변호사 업무를 보면서 뉴저지에서 의정활동 중임
- 미국내 교포 인권관련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국 주재원, 학생 등

이 많은 뉴저지에서 한국 홍보와 한국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원장님 요청) 연방 앤디킴 하원의원과 연대하여 우리원의 NJCU-KMI 공동연구센터를 지역 한국 주재원들의 협력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함
 - 우리나라 부산항과 뉴욕뉴저지항 간의 연결을 통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헷징 중요성을 이야기하였고 미국 공급망 안보차원에서 부산항의 중요성 강조
 - 아시아 항만 중 터미널내 미국이 주둔하고 있는 곳은 부산항 뿐이며, 부산항은 미국발 아시아항 화물의 첫 기항지이고 아시아발 미국항 화물의 최종 출발지로 글로벌 공급망 안보를 위한 중요한 협력 관계라 강조함
- (원장님 요청) 이러한 상황에 맞춰서 우리원이 이러한 이슈를 대응하고자 KMJ-NJCU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고 미국 정관계와 우리나라 정관계와의 글로벌 물류 공급망 관심을 촉구하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함
- 미국 주저지주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며, 한국에서 이렇게 신경을 써 주고 계시니 감사하고 KMJ-NJCU 공동연구센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적극 지원과 협력을 하겠다고 함
- 원장님 요청으로 센터 개소식('23'4월 경) 행사 때 참여하시어 미국 중심부인 뉴욕/뉴저지에서 물류 기반 글로벌 공급망 연구와 관련 우리나라 기업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함

<현지 언론 기사>



엘렌 박 뉴저지 주하원의원(민주·37선거구·오른쪽 세 번째)은 지난 9일 한국에서 뉴저지 연구소 개설을 위해 방문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방미단과 면담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뉴저지-부산 항구 사이의 물류 통로 개척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진행됐는데, 방미단은 박 의원에게 이 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엘렌 박 뉴저지 주하원의원사무실]



V

NY/NJ Port GCT 터미널 방문

- ☐ 일 시 : 2022.12.9.(금), 14:00~15:00
- ☐ 장 소 : NJ, GCT 터미널 사무실과 현장
- ☐ 참석자 : 브라이언 현장 팀장, HMM 최재원 차장, KMI 김종덕 원장, 한기원 실장, 이성우 박사, 김은수 박사, 총 6명
- ☐ 주요 내용
 - 미국 동부 최대항만인 NY/NJ항 최대 수심 터미널인 GCT에 대한 소개를 듣고 우리의 방문 목적과 취지 등을 설명함
 - GCT는 NY/NJ항의 대수심 터미널로 현재 14k TEU 선박까지 접안이 가능하며 2024년까지 24k TEU 선박까지 접안할 수 있도록 계획 중임
 - NY/NJ PA로부터 50년간(2012년~) 임대 중에 있으며, 2주전 프랑스 선사 CMA-CGM에게 30억 달러에 매각되어 주인이 바뀜
 - 글로벌 선사들의 미국 동부 항만거점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에서 CMA-CGM이 승리를 하였으며 우리나라 HMM도 관심을 가졌으나 결국 터미널은 프랑스로 넘어가게 됨
 - 해당 터미널은 NY/NJ터미널 중 가장 크고 외해로 나와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배후지와 거리가 멀어서 다수의 화주들은 내륙으로 들어와 있는 다른 터미널 이용을 선호하는 장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
 - 현재 GCT는 터미널을 반자동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완전 자동화 부분은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고용 부분 등 완전 자동화에 따른 문제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

○ 항만 배후 수송 수단 연계 비중

- NY/NJ항 배후연결 물류수단은 트럭킹이 85%, 기차가 15% 정도인데 그 이유는 뉴욕/뉴저지 인근에 인구들이 밀집되어 있어 먼거리의 배후지로 화물 수송이 용이한 철도보다 인근지역에 신속하고 저렴하게 배송할 수 있는 트럭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음

○ 장거리 지역인 시카고까지 NY/NJ항을 이용해서 철도로 배송 중임

- 이 지역은 미국 시애틀항, 미국 LA/LB항, 캐나다 밴쿠버항 등과 경쟁하고 있는 배후지로 유럽에서 오는 화물은 주로 NY/NJ항을 이용하고 아시아 발 화물은 북미 동안 항만들을 이용하고 있음



VI

NY/NJ 한국 주재원 간담회

□ 일 시 : 2022.12.9.(금), 17:00~20:00

□ 장 소 : NJ 소재 식당

□ 참석자 : 김영호 현대중공업 지사장, 유재욱 Panocean 법인장, 이우찬 차장, HMM 최재원 차장, KMI 김종덕 원장, 한기원 실장, 이성우 박사, 김은수 박사, 총 8명

□ 주요 내용

- 현재 미국 경기, 진출한 기업들 현황, 미국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한국과의 연결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음
- 글로벌 공급망에서 미국을 위한 우리나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글로벌 공급망 안보와 금융을 연결한 한미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민간 기업들의 의견을 들었음
- 우리원 중국센터 사례를 소개하면서 KMJ-NJCU 공동연구센터를 미국 동부 지역 우리나라 진출기업들의 협력 플랫폼으로 활용하고자 강조하시고 대상 기업들도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협력을 약속함